

이와타 사와 체험담

이와타 사와 (마쓰야마지부 초대부인부장) 이야기



마쓰야마지부 결성 18주년 기념근행회가 시작되었다. 근행과 간부지도가 있는 뒤, 사회자가 “마쓰야마지부 초창기 공로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꽃다발을 손에 들었다. 맨 먼저 받은 사람은 초대 지부부인 부장을 지낸 이와타 사와였다. 푸근하고 상냥한 용모의 이면에 의연하고 강인함을 지닌 여성이었다.

마쓰야마지부는 신이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함 1960년 5월 3일에 열린 본부총회에서 결성되었다. 신이치는 도쿄 로쿠로에 있는 니치다이 강당 단상에서 마쓰야마지부가 대전진하고 지부장과 지부부인부장이 된 다케다 유조와 이와타가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축복의 박수를 보내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일찍이 이와타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불행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결혼해 딸 하나를 두었지만 남편은 전쟁에 나가 병으로 사망했다. 이전에 간호사)로 일한 이와타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마쓰야마에 있는 의원에서 근무했다.

전쟁이 끝나고 수년 뒤, 다소 돈도 모여 딸 기미코와 마쓰야마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집은 아는 사람이 살던 집을 공짜나 다름없는 돈으로 빌릴 수 있었다.

양재 기술도 있던 이와타는 집에서 양재 일을 시작했다. 딸과 함께 지내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다. 그러나 모녀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쉽지 않았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 일했다.

1953년 연말, 이와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기침과 고열이 이어졌다. 병원에 가니 중증 속립성 결핵이라고 진단했다. 당시 결핵은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었다.

입원치료가 필요했지만 결핵병동은 빈자리가 없었다. 또 입원하면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더욱이 딸 곁에 있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결국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다.

인생은 사정없이 밀려오는 숙명의 폭풍과 싸우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 폭풍을 이겨내는 정신을 강하게 길러야 행복이 있다.



이와타가 속립성 결핵으로 집에서 요양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모아둔 돈이 차츰 바닥나기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병상에 누워 ‘불안’의 어둠에 떨며 자신의 불운을 원망했다. ‘불안’은 머지않아 이와타를 ‘절망’의 구렁으로 몰아넣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병원에서 약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선로 위에 멈춰 섰다. 곧 저 쪽에서 열차가 보였다.

‘편해 질 수 있어……’ 그런데 그 순간 딸 기미코의 얼굴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 딸은 어떻게 되지……’

선로 밖으로 뛰어나갔다. 죽지 못했다. 선로 옆에 털썩 주저앉은 그 옆을 열차가 덜컥거리며 지나갔다. 연신 기침을 하고 울면서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다.

희망을 잃는 일은 인생의 빛을 잃는 일이다. 신앙은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피우고 환희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한다.

이와타가 속립성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듬해인 1954년 봄, 기미코가 중학교에 들어갔다. 교복도 못 사서 이와타가 직접 만들었다. 그러나 집에는 같은 천이 없어 세일러복에 들어가는 선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천으로 만들어야 했다.

쌀도 살 수 없어 기미코의 도시락은 밥도 반찬도 모두 감자였다. 기미코는 친구들 앞에서 도시락을 보이는 것이 싫었다. “늘 감자네”라는 말을 듣기 전에 “나는 감자가 제일 좋아” 하고 선수를 치며 밝게 웃었다.

이와타는 극빈이라는 말이 마치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말인 듯이 느껴졌다.

이해 6월, 간호사 양성소 시절 친구가 오사카에서 찾아왔다. 이 친구는 예전에는 병약해서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몰라볼 정도로 건강해져 생기발랄해 보였다.

친구는 학회원이었다. 자신이 건강해진 근본적인 힘이 신심이라고 말했다.

친구는 이와타와 함께 간호의 길을 걸었던 사이다. 그런 친구가 의학이 아니라 종교를 힘주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학회원인 친구는 병을 이겨내는 근원의 힘이 인간의 생명력이라고 말하고 불법(佛法)이 그것을 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숙명에 이르렀다.

이와타는 솔깃했다. 왜냐하면 가장 궁금한 점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자각하던 못하던 과거세부터 이어지는 숙명을 짊어지고 있어, 이와타 씨가 남편을 여윈 것도 병으로 쓰러진 것도 숙명이니,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금세에 그 숙명을 전환하고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 니치렌대성인불법(日蓮大聖人佛法)이 그것을 설하고 있지”

친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다. 이와타는 그 목소리에 압도되어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친구는 3일 동안 이와타의 집에 머물렀다. 머무르는 동안에 때로는 체험을 통해 또 어서를 펼쳐가며 불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했다.

그리고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면 안돼, 네가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어” 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와타의 가슴에 친구의 진심이 뜨겁게 스며들었다.

벗의 행복을 바라는 지극한 정성은 저절로 홍교로 귀결된다. 절복은 자비의 발로다.

이와타는 친구의 열의에 감동해 신심을 해보자고 마음을 정했다. ‘내 결핵이 낫지 않으면 본전치기고 나오면 황재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본존을 하루 받으려면 오사카까지 가야 했다. 이와타는 의사에게 오사카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지만, 간절히 부탁하자 허락해 주었다.

‘회복될 기미가 없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 같다.

이와타는 친구와 배로 오사카에 갔다. 그곳에서 좌담회도 참석했다. 결핵 등의 병을 이겨낸 체험도 들었다. 그러나 이와타는 그대로 믿지 못했다.



이와타는 불법은 믿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에게 신심을 알려준 친구의 진심과 정성을 다한 마음에는 감동했다.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자!’ 고 정하고 오사카에서 마쓰야마로 돌아왔다.

신심의 근본은 어디까지나 묘법(妙法)을 확신하는데 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사람을 따라오기 마련이다.

니치렌대성인은 “법은 스스로 흥통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흥통하는 고로 인법(人法)이 함께 존귀하니라” (어서 856쪽)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법을 넓히는 사람의 인격과 행동이 중요하다.

이와타에게 홍교한 친구는 매달 두 번은 오사카에서 지도하거나 격려하러 찾아와 근행과 교학을 가르쳐주었다. 또 그 친구는 마쓰야마에 아는 사람도 많아 올 때마다 홍교하러 다녔고 입회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다.

얼마 뒤, 이와타의 딸 기미코도 신심을 시작해 이와타가 아는 마쓰야마의 동지는 11세대가 되었다. 모두 모여 좌담회도 열기 시작했는데 오사카에서 보내오는 세이쿄신문이나 선배간부가 보내온 격려 편지 등을 함께 읽었다.

그 무렵, 이와타의 병상은 이미 회복을 보여 외출도 허락되었지만,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고열이 났다.

입회하고 이듬해인 1955년, 도쿄와 오사카에서 간부 몇 사람이 하계지방지도로 마쓰야마에 왔다. 그리고 이와타의 집에도 격려하러 찾아왔다.

도쿄에서 온 부인부 간부는 이와타가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정을 듣자 “함께 근행합시다” 하고 말하고 진지하고 낭랑하게 독경하고 창제했다.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신심으로 반드시 병을 이겨내겠다!’고 맹세하고 사자가 부르짖듯이 제목을 불러야 합니다. 대성인은 ‘남묘호렌게교는 사자후와 같으니 어떠한 병인들 장애를 할 손가’ (어서 1124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심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복용하는 약도 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도쿄에서 온 부인부 간부는 이와타에게 더욱 힘주어 말했다.

“이와타 씨, 숙명을 타개하는 지름길은 절복입니다. 남의 행복을 바라며 법을 설하면, 자신에게 불보살의 위대한 생명이 용현합니다. 그 생명력으로 숙명도 전환하고 병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함께 절복과 홍교에 힘쓰시다”

이와타는 확신에 넘친 부인부 간부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좋아, 그렇다면 이 신심에 걸어보자’ 하고 결심했다.

다음날은 아침부터 홍교하러 다녔다. 오후가 되자 ‘열이 나겠군’ 하고 생각했지만, 열은 나지 않았다.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발열은 없었고 그 뒤로 열은 사라졌다. 병원 의사도 “혹시 다른 약을 드셨나요?” 하고 물을 정도였다.

그것이 이와타가 느낀 초신의 공덕이었다. 확신이 솟았다. ‘신심을 근본으로 하면 반드시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벗의 행복을 바라며 불법을 말하면 이렇게도 환희 차고 생명이 약동하는가 하고 실감했다. 자신이 병든 몸이라는 사실도 잊고 활동에 힘썼다. 실제로 발열 뿐 아니라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도 사라졌다.

1956년 5월의 일이다. 이와타는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戸田城聖)가 고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도다는 “마쓰야마에서 잘 왔군” 하고 말하고 가만히 이와타에게 시선을 쏘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그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당신도 꼭 행복해져야 한다. 아니 반드시 될 수 있다! 어본존에게서, 학회에서 평생 떨어지면 안 된다.”

이와타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도다의 자애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힘내자! 반드시 행복해지자!’ 하고 자신에게 말하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누가 고뇌하고 신음하는 서민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비출 것 인가. 용기의 불을 켤 것 인가. 창가학회가 그 사명을 떠맡아왔다.



이와타가 도다를 만나고 석 달 뒤인 1956년 8월, 오사카지부 마쓰야마지구가 결성되었다. 이와타는 지구담당원으로 임명되었다.

이 무렵 이와타는 속립성 결핵이 완쾌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 기쁨은 광선유포를 향한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이와타는 양재 일을 해서 버는 수입으로는 생활이 생각대로 되지 않자 시내 변화가에 점포를 빌려 우동집을 시작했다. 자리도 좋고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맛도 좋아 가게는 번창했다.

그러나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야 해서 학회활동을 할 시간이 뜻대로 나지 않았다.

지구의 회원은 에히메현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 어떻게 격려의 손길을 뻗어야 할지 고민했다.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며,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다. 이와타는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학회활동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다.

광선유포를 위해 곳곳이 살아가겠다고 결의하고 마음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안이 생기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타는 먼 곳에 살아서 좀처럼 만나러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주 편지를 썼다. 가게가 어느 정도 한가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서둘러 활동하고 돌아오는 하루하루였다. 아침부터 밤까지 자유롭게 학회활동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부러웠다.

1957년 10월, 이와타는 지구담당원 겸임으로 오사카지부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받았다. 지부가 있는 오사카에 갈 일도 많아져 더욱 바빠졌다.

게다가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집주인이 “땅을 팔기로 했으니 나가달라”고 한 것이다.

이와타는 난처했다. 지금 사는 집은 집세가 거의 공짜나 다름없고 방도 많고 마당도 넓었다. 좌담회를 비롯해 각종 회합 장소로도 제공하고 있었다. 이 집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광선유포도 진척되었다고 해도 좋았다.



이타와 사와는 집을 옮겨야 하는 일로 고민에 빠져 간사이 총지부장인 하루키 세이이치로에게 지도를 요청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지 않나요.”

이와타도 그 점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가 문제였다.

하루키는 웃음을 띠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기원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고뇌는 이겨내기 직전이 가장 괴로운 법입니다. 등산도 팔부, 구부 능선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결심하고 기원하며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정상은 멋지답니다!”

그 직후에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와타를 처음 만났다. 하루키가 간사이 본부에 있는 신이치에게 이와타를 소개하며 병고와 경제고를 짊어지고 여자 혼자 힘으로

딸을 키우며 ‘광포의 어머니’로서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이치는 따뜻하게 감싸듯 이와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명에 눈물 흘려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은 행복해질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용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일은 모두 불법(佛法)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흙탕물이 깊을수록 연꽃과 그 열매가 크다고 합니다. 고뇌나 괴로움이 클수록 행복도 큼니다. 신심을 해간다면 고뇌는 마음의 보석이 됩니다. 변독위약의 불법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마음속 깊이 실감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 아직 ‘큰일이다. 괴롭다’고 생각되는 일이 많겠지만, 당신은 이미 행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진지하게 바라고 학회활동에 힘쓰는 일이 바로 행복의 길을 걷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행복밖에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남의 행복을 생각하고 광선유포의 사명을 위해 사는 기쁨과 충실감을 느끼고 있지요. 그것이 경애혁명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와타는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듯했다.



이와타는 신이치에게 격려를 받고 얼마 뒤, 집주인에게서 이전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고액이었다. 이와타는 창제의 힘을 실감했다.

우동집이 번창한 덕분에 저금도 할 수 있었다. 그 돈과 보상금을 합쳐 오래된 집을 구입하고 용자를 받아 2층 연립주택으로 늘려지었다.

또 변화가에 있던 우동집을 자택 한쪽으로 옮겼다. 가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도 생겨, 바라던 대로 날마다 학회활동에 바쁘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이와타의 딸인 기미코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서 일하게 되어 경제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이와타는 딸이 사회인이 된 1960년에 마쓰야마지부의 초대 부인부장이 되었고, 2년 뒤에는 시코쿠 제3총지부 부인부장이 되었다.

이와타는 ‘내가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진 까닭은 광선유포를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복해진 자신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해 행복해지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자’고 다짐했다.

에히메현 남부 마을까지 열차나 버스를 갈아타고 또 걸어서 왕복 7시간 걸려 수없이 절복활동을 다니기도 했다. 불법대화에 땀을 흘리는 일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이와타는 자주 사람들에게 “나는 보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왜냐하면 신이치가 말했듯이 젊어서 남편을 잃은 일이나 병고, 경제고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고생 등, 자신이 체험한 모든 일이 사람들에게 환희 차게 말할 수

있는 ‘보석’ 이라고 생명 깊이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후배에게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고 한다.

“지금 자신이 병고로 괴로워하기에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된
답니다. 경제고로 힘들어 하는 사람은 경제고로 허덕이는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되지요. 지용의 사명을 자각한다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신이치가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2년 뒤인 가을에 이와타에게 새 사진첩을
한권 선물했다. 그 속표지에는 ‘행복첩’ 이라고 써어 있었다. 왜냐하면 솔하게
고생한 사람이기에 더욱 행복의 꽃을 잇따라 피워 그 기록을 사진첩에 남겼으면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타는 그 뒤 ‘행복의 여왕’ 이 되어 신심의 실증을 곳곳이 나타내
보였다.

신이치는 지금, 마쓰야마지부 결성 18주년을 축하하는 기념근행회에서 이와타
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에히메의 어머니’ 입니다. 한 걸 같이 싸우는 마음과 초창기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특히 새로운 지부제
시작을 맞아 그 정신을 끝까지 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와타의 얼굴이 결의로 빛났다.

그리고 마쓰야마지부의 초대 지부장을 지낸 다케다 유조에게도 꽃다발을 증정
했다.

신이치는 다케다에게 나이를 묻고 예순 살이라고 듣자 바로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이제부터입니다. 마키구치선생님은 일흔 살에 자주 ‘우리 청년은’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에서
서른 살을 뺀 나이가 당신의 나이입니다. 청년끼리 싸워봅시다!”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고 악수를 나눴다.

부회장인 세키 히사오의 인사에 이어서 신이치가 지도할 차례가 되었다.

신이치는 이 자리에서 강성한 기원의 중요함을 강조해 두자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신심의 세계는 모든 것이 어본존을 향한 기원에서 시작하기 때문이
다. 기원 없는 신앙은 없다. 기원 없는 행복도 없다. 기원 없는 광선유포의 용자
도 없다.

니치렌대성인이 ‘젖은 나무에서 불을 내고 마른 흙에서 물을 얻으려 하듯 강
성하게 말하느니라’ (어서 1132쪽)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강성한
신심과 강한 기원 그리고 이루지 못할 소원은 결코 없다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불신(不信), 즉 흔들리는 마음과 싸우는 정신 투쟁이다. ‘나는 행복해
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는 해매는 마음과 나약함을 물

리치고 가슴속에 묘법(妙法)을 용현시켜 절대적 확신을 세우는 싸움이라고 해도 좋다.

신이치가 이렇게 외쳤다.

불황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한 신심을 불러일으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생활면이나 직장과 지역에서 신심의 실증을 확실하게 나타내주십시오.

어서에는 ‘일체의 법은 개시(皆是)불법이라’ (어서 562쪽)고 써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법자(佛法者)는 정법을 믿고 행하는 공덕을 사회에서 열어 나타내 보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신심을 근본으로 남보다 두 배 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궁리하기 바랍니다.

또 인간으로서 자신을 단련하고 인격을 연마해 모두에게서 신용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가 보아도 느낌이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인격이 고결한 사람, 따뜻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이면 장사도 잘 될 것이고 모두가 불법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이 나쁜 사람, 불친절한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 냉혹한 사람은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인품으로는 법을 넓히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인간혁명, 그리고 일에서도 광선유포에서도 인간혁명이 일체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불도수행을 통해 쌓은 ‘마음의 재보’는 경애와 인품이 되어 찬연히 빛난다. 그것이 바로 광선유포를 총마무리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

휘트먼이 이렇게 읊었다.

“개혁이 필요할수록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인격’이 필요해진다.”

- 신 인간혁명 <법기>(43~52)에서

<끝>